나주 발굴유물 보관장소가 없다

토기등 300여점 임시 청사서 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 관리 허점

나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제대로 된 유물 보존시설을 갖추지 못해 유물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립문화재 연구소는 지난 2005년 나주로 이전, 최근까지 활발한 문화유적 발굴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화재연구소는 올들어 다시면 복암리와 영동리 일대, 왕곡면 화정리 고분, 반남면 대안리 방두 마을 발굴 사업을 벌였고 하반기에도 다시면 회진성과 오량동 일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물을 전시 및 보관할 수 있는 청사가 없어 현재 입주해 있는 이창동 사무실 20여평에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물보존에 필수적인 항온·항습 시설이 없어 중요 유물은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본소로 보내고 나주지역에는 토기 등 300여점만 보관하고 있다.

국립문화재 연구소 청사는 오는 2009년으로 예정돼 있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물보관에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시가 마련해 준 임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어 2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농업인 자녀 컴퓨터 무료교육

담양군 농기센터 방학맞아 2개반 운영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담양 농업기술센터는 올 상반기에 13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반과 엑셀·유통정보활용반 등 개인별 수준에 맞는 1대 1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농업기술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벽·오지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자격증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지역에는 차량을 지원해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컴퓨터자격증반, 홈페이지 제작반, 농업경영전문가 홈페이지 운영 관리반을 개설하는 등 240명의 농업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061-380-3406)

담양 농업기술센터는 이같은 공을 인정받아 농림부가 실시한 농업인정보화교육 추진분야에서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장애전담 어린이집

해남 북평리에 개원

해남지역에 장애전담 특수어린이집이 개원했다.

9일 해남읍 북평리에 문을 연 벧엘특수어린이집(원장 김이호)은 완도와 진도 등을 포함해 전남 중부지역 유일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다. 대지 1천㎡, 건물 400㎡ 규모의 단층 건물로 5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0세부터 12세까지 장애아동 45명을 수용할수 있는 벧엘어린이집은 비장애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이사장 김해연(37)씨는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장애아들을 바깥세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강진청자 오사카 전시회 성황

강진 청자의 일본 오사카 전시회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고 있다. 강진 청자는 지난달 7일부터 도쿄와 쿄토 등 7개 지역을 돌며 일본 순회 전시회를 갖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체험행사

전통 민속놀이·짚 공예 등 확정

조직위, 6개 프로그램 선정

내년 4월 18일 개막되는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체험 행사가 확정됐다.

(재)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전통 민속놀이와 ▲미꾸라지잡이 ▲가축 몰이 ▲보리·완두 그을음 ▲ 짚 공예 ▲손수레 체험 등 6개 프로그램을 체험 행사로 확정했다.

전통 민속놀이 체험장은 전통 생활용품을 직접 체험하며 선조의 문화와 생활상을 배울 수 있다.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은 연못 속에 직접 들어가 방사된 미꾸라지를 잡은 뒤 이를 가져갈 수도 있어 어린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 전망이다.

또 가축 몰이 체험은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나비·곤충, 친환경농업 등과 관련한 퀴즈를 풀면서 토끼, 아기 멧돼지 등의 가축 몰이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번 나비축제 때도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다.

특히 보리·완두 그을음 체험장은 솔잎, 볏짚 등에 불을 붙여 보리, 완두 등을 구워 먹고 보리 피리도 불어보는 곳으로 어른들은 동심세계를, 어린이들에게는 부모세대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짚 공예 체험장은 가마니, 새끼 등을 직접 짜보는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지방자치 경영대전

영광군 '최우수'

영광군이 행정자치부 주최 지방자치 경영대전 농특산물 분야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영광군은 지난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우수농특산물 생산과 판매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사계절이 사는 집'과 '참사랑해 말그미' 등 전국 12대 브랜드쌀과 청보리 한우 브랜드는 친환경 웰빙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열린다.

영광군은 코엑스 전시관내에 '내고장 자랑관'을 개설해 '희망이 넘치는 살맛나는 굴비의 고장'을 컨셉으로 관광자원과 특산품 홍보에 나선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불우이웃 쌀·장학금 전달

광산로타리클럽

광산로타리 클럽이 400여만원 상당의 쌀과 장학금 등을 전달했다.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 광산로타리클럽은 지난 6일 광산구청에 불우이웃에 써달라고 쌀 30포대(시가 130여만원)를 맡겼다. 또 남녀 대학생 2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씩과 불우이웃 5명에게 성금 10만원씩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쌀은 지난 5일 회장단 이·취임식때 축하 화환대신 쌀로 받은 것이다.

김원출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새얼굴

"화합·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 건설"

문 인 수 화순 부군수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문인수(57) 신임 화순부군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동력으로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안 출신인 문 부군수는 지난 1969년 공직생활을 시작, 여천군 지역경제과장·전남도 레저도시기획단장·관광진흥과장을 거쳤다. 가족으로는 부인 윤옥진씨와 1남1녀가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건강휴양촌 '정남진 장흥' 육성 최선"

박 만 호 장흥 부군수

"건강휴양촌인 '정남진 장흥' 육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일 취임한 박만호(57) 장흥 부군수는 "오랜 행정 경험을 살려 조직화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정 목표인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출신인 박 부군수는 지난 1973년 공직에 입문해 장흥군 문화공보실장, 전남도 기업도시개발팀장, 전략산업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명자(48)씨와 1남 2녀.

/장흥=김용기기자 kykim@

"FTA위기 지혜롭게 대처하겠다"

주 영 찬 담양 부군수

"희망찬 담양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신임 주영찬(56) 담양 부군수는 "FTA 협정체결 등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양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남이 고향인 주 부군수는 전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관광개발과장, 관광진흥과장을 거쳐 신안군 부군수, 전남도 천일염 전략산업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조명숙씨와 2남.

/담양=차재화기자 jhwha@